

강현우, 연상과

열애설...?

오일지의 강현우 씨가 현재 안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연상과 교제 중이라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현재(10월 20일 기준) 46일째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사생활인 만큼 존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일신문 팀은 강현우씨의 열애를 응원합니다.

손유진 기자

2024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16일까지 안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진행되었다. 장소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로 고흥에 위치하여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만족스럽지는 의견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특히 두 번째 날에는 몇몇 선생님들께서 마스터키를 따고 들어오겠다고 경고하셔서 학생들의 불평도 많았다. 여학생의 방인 1층은 방에 입실하자마자

1,2층 모두 별레가 출몰했고 남학생 방인 2층은 1층보다 별레가 적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는 자율배식이다. 전체적으로 맛있는 반찬들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는 의견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던 체험은 만족스러웠던 체험들도 있지만 일부 체험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6학년 1반을 대표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이 약 75점 정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유진 기자

뽕뽕 오일오락실,

성공적으로 끝나...

ABS STUDIO의 첫 예능, '뽕뽕 오일오락실'이 마지막 방송을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2화 방영 후의 유출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확인 결과 두 명의 학생이 2023학년도 5학년 1반 학생이 아닌 학생에게 일곱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유출한 학생 중 한 명은 뽕뽕 오일오락실 제작과정 중 작성한 기사를 위반하여 하고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른 학생도 이

사건으로 인해 ABS 측에서 하고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ABS STUDIO의 입장문입니다.

ABS STUDIO 입장문

안녕하세요

ABS STUDIO입니다. 먼저

'뽕뽕 오일오락실'로 인해

논란이 된 점 사과드립니다.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지만

최종 조사 결과 유출한

학생은 2명이었고, A학생의

폰에서 전부를 봤다고 하고

B학생은 인트로 부분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BS STUDIO는 인트로

부분만 봐도 '뽕뽕

오일오락실' 방영 이용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둘 다

하고처리를 해야한다고 ABS

인사 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ABS

인사팀은 A학생을 하고

처리하고 B 학생은 제작과정

중 하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사건이

발생한다면 기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해결 되었

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뽕뽕 오일오락실'의 다음

시즌은 ABS STUDIO의

대표와 편집장, 그리고 출연자들의 스케줄을 조율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ABS STUDIO 대표(메인 PD)와 출연자를 제외한 인원은 전부 현재 제작에 불참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시즌2가 제작될지 불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진 기자

북한의 '위협',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나?

{외부:BBC NEWS 코리아}

북한은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안전지역 준비태세를 갖추고 감시장계근무를 강화했다"고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국민 안전 위협 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최근 미국의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부:조선일보} 문준아 기자

북한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날리는

진짜 의도는?

{외부:BBC NEWS 코리아}

장거리 인공위성 오물 풍선 실험 원과 대를 놓고 국방부에 달린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장르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인공위성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물 풍선은 경의와 서울을 물론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울진과 전남 경북 등 전국 곳곳에 떨어졌다. 풍선 잔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의와 국방부 청사 국회도서관 주변 법원과 경찰청은 물론 시민들이 머무는 버스 정류소나 주택가, 시장 학교 등에도 떨어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약 160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도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외부:조선일보} 리처드 김 기자

"'무시해' 한마디에"..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갑론을박 {외부:OSEN 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나가 '작장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은 후, "눈물이 안 멈춘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니의 출석이 화제였던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여러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니의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다들 문제인 가'라는 지적이다. 하니는 15일 오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하니와 함께 아도이 감영 대표도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아나는 하니브 내에서 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쏟았다. 먼저 하니는 "해와 매아임 받고 복에서 가려고 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과 매아저를 지켜 지켜서 잘 안됐다.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매아저가 나와 눈물을 마치고 뒤에

눈을 마치고 뒤에 따오는 멤버에게 못 본 척 무시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니는 "말하기 애매하지만 당한 사람만 느끼는 게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 먼저 하니는 국정감사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야에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남아가고 문힐 거라는 걸 알았어. 내년에 선배님도 후배들 저와 같은 동기

분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 분들도 야에 있을 때까지 없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하니는 "사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작어도 작장내 괴롭힘과 때를 받은 게 없었을 것"이라며 뉴진스를 자고 싶었던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 끝으로 발언하면서 눈물을 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감영 대표로는 "당시 사내 아사

중한 명으로 야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니 "저도 하니 씨의 말과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압력 자를 찾았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확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은 여러 반응으로 이어졌다. 한지아틀 멤버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첫 사례로 취재 제한이라는 지적

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알베르니 야스트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현실이 전한다. 하니 눈물을 흘린 하니가 안쓰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하니의 주장을 과연 '국정감사에서 다들 문제인 볼 수 있나?'라는 의문도 제기됐다. "하니 때를 줬던 주장을 국민들이 국정감사에서 들어야 하는가", "하니의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다들 문제인 아닌 것

같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하니는 국정감사 이후 팬들을 먼저 달랬다. 하니는 국정감사 후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내가 너무 감사하다. 바쁘고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맙고 나도 울고 싶진 않다. 눈물이 안 멈춤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신미경 기자 2024. 10. 22. / No. 9